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임서아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input type="checkbox"/>)	이유(<input type="checkbox"/>)		
소속 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강초등학교			학년-반	4 - 2
대상 도서	세종책방 회원을 모집합니다!	지은이	정성현	출판사	주니어마리
주 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73 (우편번호 : 48091)				
	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좌수영로 225, 102-1503 (센텀리버 SKVIEW) (우편번호 : 47571)				
연락처	집 : 이동전화 : 010-3885-1797	E-mail 주소 : princs11@naver.com			

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 강동채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 핸드폰 : 010-2435-4131

이메일 : milchtea@hanmail.net

*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림)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지원자 : (임서아 )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 (양식)

해강초등학교 4학년 2반, 성명 (임서아), 전화번호(010-3885-1797)

대상도서	세종책방 회원을 모집합니다!
토론방법	이야기식 독서토론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1. 세종책방이 실제로 있다면 나는 회원이 될 것인가? 물론이다. 나의 독서법을 점검하고 세종책방에서 임금님의 독서법을 터득하고 싶다.</p> <p>2. 책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인가? 수많은 글밥, 내가 좋아하는 작가, 어릴 적 엄마가 읽어주던 그림책, 감동이 떠오른다.</p> <p>3. 사람은 꼭 독서를 해야 할까? 당연하다. 왜냐하면 독서를 통해 좀 더 발전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4.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뭘까? 지식을 쌓기 위해서, 책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작가가 왜 이 글을 썼는지 생각 할 수 있어서</p> <p>5. 책 읽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뭘까? 글밥이 많은 책도 있고 머리를 써면서 읽어야 하는 책도 있고 그 사람의 생각을 추론해야하는 과정이 번거롭기도 하기 때문이다.</p> <p>6. 독서의 목적이 꼭 지식을 쌓기 위해서일까? 아니다.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목적도 있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1. 세종대왕의 독서법은 무엇이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세우기 - 천천히 반복해서 읽기 - 질문하며 읽기 - 사실적으로 읽기, 추론하면서 읽기, 비판적으로 읽기 - 융합 실용 독서 <p>1-1. 세종대왕이 다음의 독서법을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꼼꼼하게 읽고 실제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p> <p>1-2. 세종대왕은 어떻게 독서법을 활용했을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될 때, 독서법을 활용했다.</p> <p>1-3. 세종대왕은 위의 5가지 독서법이 가장 좋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 글의 내용을 더 잘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1-4. 융합 실용 독서법은 무엇인가? 여러 분야의 지식을 통합해 실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독서 방법이다. 책을 읽고,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p>

	<p>2. 세종대왕은 책을 읽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많은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p> <p>세종대왕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을 만들었다. 내 생각이 가장 훌륭해 보여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질문하며 더 좋은 생각을 찾았다.</p> <p>3. 책 내용을 전부 믿지 않고 비판하거나 추론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p> <p>글쓴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썼는지, 잘못된 사실은 없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나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비판적 읽기와 추론하며 읽기가 꼭 필요하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1. Chat GPT에 물어보기만 하면 바로 답이 나오는 세상에서 꼭 책을 읽어야 할까?</p> <p>그렇게 생각해보면 책은 있으나마나한 그런,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문화재 혹은 유물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더 많은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책을 읽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p> <p>1-1. AI시대에, 머지 않아 책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p> <p>인공지능이 정보가 정확하다고 해도 개념지식이 담긴 책은 이길 수 없다. 또 활자를 읽는 즐거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p> <p>3. 책을 한 분야만 골라서 읽어도 될까요?</p> <p>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하듯 책 또한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골라서 읽어야 한다. 영양이 과다한 분야가 있고 결핍된 분야가 생길 수 있다.</p> <p>4. 책의 종류는 다양하다. 어떤 종류의 책이 있는가?</p> <p>오디오북, 전자책, 활자책, 점자책 등이 있다.</p> <p>5. 줄글이 아닌 만화, 잡지 등을 자주 읽어도 될까요?</p> <p>나는 된다고 생각한다. 만화책은 글과 그림이 있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조금씩 보는 것도 좋은 것 같다. 물론 많이 보는 것은 좋지 않다.</p> <p>6. 내가 책을 직접 눈으로 읽지 않고 남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듣는 것도 바른 독서라고 할 수 있을까?</p> <p>바른 독서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귀로 들으니 흘려 듣는 문장이나 핵심 지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p> <p>7. 내 생활에서 융합 실용 독서를 활용한다면 무엇이 있을까?</p> <p>요리책을 보면 초등학생이 쉽게 할 수 있는 요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보고 싶다. 뉴욕 메트로 미술관의 작품을 책을 통해 먼저 접하고 실제로 미술관에서 작품을 만나보고 싶다.</p> <p>8. 내가 가장 잘 하는 독서 방법이 있나요?</p> <p>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며 잠시 집중할 때 가장 잘 기억이 남고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함께 떠오른다.</p> <p>9. 내가 고쳐야 할 독서방법은 무엇인가요?</p> <p>끌맺음을 잘 하지 않고 이책 저책 읽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을 세종대왕처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습관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p>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배장원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	이유()		
소속 학교	(부산)시/도 (해운대)구/시/군 (우)동/읍/면 (해운대동)학교	학년-반	5-4		
대상 도서	이상한 광해	지은이	정경민	출판사	북극곰
주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3 해운대동학교(우편번호 : 48091)				
	집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5 경동마리나(우편번호 : 48091) 10층 105호				
연락처	집 : 010-2860-8154 이동전화 : 010-5538-5399	E-mail 주소 : taeji909@hanmail.net			

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 강동재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 핸드폰 : 010-2435-4131
이메일 : milchtea@hanmail.net

*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립)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	---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 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5월 11일 지원자 : (배장원)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2025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개인전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 (양식)

(해강초등)학교 (5)학년 (4)반, 성명 (배장원), 전화번호(010-2865-8154)

대상도서	이상한 헌혈
토론방법	이야기식 독서토론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1) 헌혈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을 했을 것이다.</p> <p>2) 헌혈은 꼭 해야 할까? 아니다. 봉사처럼 헌혈도 봉사니까 의무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p> <p>3) 사람의 피 말고 다른 동물들의 피로도 헌혈을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유전자 결합같은 기술들의 발달이 부족하다. 하지만 미래에 과학적인 기술들이 늘고, 발달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1) 슬픔의 또 다른 뜻은 왜 사랑일까?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 같지만, 사랑은 하나의 기억이기 때문이다.</p> <p>2) 박사님은 왜 감정을 사람에게 주입할까? 답답한 감정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다</p> <p>2-1) 왜 감정을 주입하면 과거의 감정으로 돌아 갈까? 옛날의 느낌이 감정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다.</p> <p>2-1)4) 감정헌혈이 있다면 할 것인가? 할 것 같다.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안 느끼면 그나마 지분이 좋아질 것 같기 때문이다.</p> <p>3) 감정헌혈을 할 때는 왜 어린이가 더 좋을까?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p> <p>3-1) 자신이 가진 풍부한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 나는 신나는 감정과 금방 슬퍼지는 감정 두 가지가 좀 많다. 열심히 해서 결과가 좋으면 금방 신나기도 하고, 하기싫은 게 있으면 슬퍼지고, 금방 눈물이 떨어지며 잘 운다.</p> <p>5) 용기가 감정헌혈을 왜 했을까? 문화 상품권을 얻기 위해서다.</p> <p>6) 감정헌혈의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장점은 하루 동안 뽑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 단점은 그 감정을 써야 할 때 쓰지 못한다.</p> <p>7) 감정헌혈의 부작용은 없을까? 제 생각에는 없는 것 같다. 하루 정도는 그 감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겠지만 곧 돌아오기도 하고, 용기는 감정헌혈을 3번이나 했지만, 어디 아픈 곳 없이 멀쩡하기 때문이다.</p> <p>8) 이 책의 교훈은 뭘까? 감정을 피하지 말고 받아 들여야 한다는 것 같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1) 감정헌혈이 필요한 곳은 없을까? 감정을 내고 싶은 대로 못 내는 사람이나,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에게 필요할 것 같다.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 같다.</p> <p>2) 헌혈은 나눔이다. 그러면 꼭 나눔을 해야 할까? 나눔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기분도 좋아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돋는다</p>

는 것이 뿌듯한 느낌도 듈다.

2-1)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서로 아껴쓰고 나눠쓰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영어를 잘한다. 영어를 좀 어려워 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내가 실천 할 수 있는 나눔의 방법인 것 같다.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이도연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	이유()		
소속 학교	(부산)시/도 (해운대)구/시/군 (우)동/읍/면 (해강초등)학교	학년-반	5-1		
대상 도서	문시티	지은이	김주영	출판사	풀빛미디어
주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 해강초등학교 / 부산시 해운대 해운대해변로 73 (우편번호 : 48091) 집 : 부산시 해운대 해운대로 452번길 18 대우증상 A 101-501 (우편번호 : 48089)				
	집 : 010-3598-9051 이동전화 : 010-4598-9051	E-mail 주소 : hajimeme01@naver.com			

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 강동채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 핸드폰 : 010-2435-4431
이메일 : m7chfea@hanmail.net .

*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립)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	---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6 월 5 일 지원자 : (이도연) 인 이도연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 (양식)

(해강초등)학교 (5)학년 (1)반, 성명 (이도연), 전화번호(010-4598-9057)

대상도서	문시티
토론방법	이야기식 독서토론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1. 표지의 여자아이는 왜 우울해 보일까요? A. 고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p> <p>2. 이 이야기에서 미래, 과거, 현재 중에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A. 미래의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표지에 건물들이 많이 있고 공중에 떠 있는 도로도 보이기 때문입니다.</p> <p>3. 여자아이는 어떤 일을 겪을까요? A. 문시티에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제목이 문시티이기 때문입니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1. 왜 리수가 차에 타고 있을땐, 천천히 차가 가게 할까요? A. 교통사고가 날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p> <p>2. 리수의 엄마는 이수원 수학자가 특강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왜 이상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A. 이수원 수학자를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p> <p>3. 이수원 수학자는 왜 리수를 연수의 동생이라고 하였을까요? A. 다른 사람과 착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수와 비슷한 사람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4. 엄마에게 리수가 “연수가 누구야?”라고 물었을 때, 왜 엄마는 울었을까요? A. 연수와 관련된 슬픈 사연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p> <p>5. 한윤비와 패거리들은 왜 동현이를 괴롭힐까요? A. 동현이가 인공다리를 쓰고 있어서 벌레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p> <p>6. 어떻게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A. 죽은 사람을 만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p> <p>7. 어떻게 유전자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A. 죽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처럼 유전자를 복제하여 똑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습니다.</p> <p>8. 연수를 가르치던 이수원 수학자는 리수와 이야기 할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A.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리수가 연수의 클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9. 문시티는 어떤 곳일까요? A. 달처럼 무중력 상태인 곳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시티를 해석하면 달도시라고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달처럼 무중력 상태를 유지하는 도시일 것 같습니다.</p> <p>9-1. 동현이는 왜 문시티에 가려고 하나요? A. 문시티에 가면 인공다리 때문에 아프지 않고 잘 살 수 있고 한윤비 패거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10. 리수는 왜 가출하기로 하였나요? A.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연수의 클론이라고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리수에게 리수가 연수의 클론이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연수가 좋아했던 수학만을 강요해 자신이 리수가 아닌 연수로 대우받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1. 요즘도 인공다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시티에 나온 것처럼 많이 쓰이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단점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요? A.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인공다리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국가나 사회가</p>

	<p>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도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도구에는 많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제공한다면 조금 더 낮은 가격에 인공다리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p> <p>2. 만약 문시티처럼 클론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자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 클론을 만들건가요? A. 저라면 만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가 죽으면 너무 슬프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클론을 만든 후에 클론에서 너는 누구의 클론이지만 그래도 엄마는 너를 너로써 오롯이 사랑한다고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p> <p>3. 현실에 만약 문시티 같은 무중력도시가 생긴다면 내가 다리가 불편하다고 가정할 때, 문시티로 갈 것인가요? A.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리가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무리가 있는데, 무중력도시에서는 인공다리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큰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고, 나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p>
--	--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한윤슬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	이유()		
소속 학교	(부산)시/도 (해운대)구/시/군 (우)동/읍/면 (해강초등)학교			학년-반	5-2
대상 도서	아프리카 쟁탈전	지은이	기획집단 MOIM	출판사	2da
주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 부산시 해운대구 해변로 73 (우편번호 :)				
	집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115 307동 1304호 (우편번호 :)				
연락처	집 : 이동전화 : 010-8537-6544	E-mail 주소 : y3k26@hanmail.net			

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 강정채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 핸드폰 : 010-2435-4131

이메일 : milchtea@hanmail.net

*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림)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	---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5 월 10 일 지원자 : (한윤슬) 한윤슬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2025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개인전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 (양식)

(해강초등)학교 (5)학년 (2)반, 성명 (한윤슬), 전화번호(010-8445-6544)

대상도서	아프리카 쟁탈전
토론방법	이야기식 독서토론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1) 아프리카 하면 생각나는 것은? 아프리카 하면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서 흙을 파서 흙탕물이라도 먹고 살아서 병에 걸리고 점점 시들어가는 힘들고 어린아이들이 생각난다. 또 무더움, 다 마른 땅이 생각난다.</p> <p>2)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배경이 쓰였을까? 표지를 보면 흑인들이 백인들에게 무자비하게 당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 그 시대에 아프리카와 노예의 개념, 특징들이 섞인 내용인 것 같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처럼 식민지인 시대가 있었고, 인도네시아, 대만 등 많은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나라 중에 우리에게 죽음과 고통, 절망으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 주민들의 이야기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인 것 같다.</p> <p>2-1) '쟁탈'은 무엇이고 생활 속에서 쟁탈과 관련된 경험은? 쟁탈의 쟁은 다툴 쟁, 탈은 빼앗을 탈이라는 한자를 쓴다. 즉 쟁탈은 서로 다투어서 무언가를 빼앗은 것을 의미한다. 어떤 책이 한 권이 있었는데 그 한 권을 읽으려고 동생과 쟁탈을 했던 경험이 있다.</p> <p>3) 이런 일은 왜 할까? 다른 이들보다는 자신만의 이익을 생각해 노예들이 죽든 말든 원하는 걸 편하게 얻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 그리고 나와의 다른 점을 비꼬아 말하는 차별과 고정관념, 환경 때문인 것 같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1) 왜 아프리카에 나라는 직선으로 분단되어 있을까? 직선 형태는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는 없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이 직선 형태는 인위적으로 그은 것이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주인이 없다고 결론이 난 베를린 회의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의 나라들이 땅 따먹듯이 아프리카를 나누었기 때문이다.</p> <p>2) 유럽인들은 왜 아프리카 대륙에 사는 사람들을 노예로 데려갔을까? 원래는 원주민들을 동원했으나, 유럽 사람들을 타고 넘어온 많은 세균 때문에 전염병으로 수가 줄어 일하는 사람이 없어졌다. 그래서 노예가 되기 위한 조건에 만족한 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이었다.</p> <p>2-1) 유럽인들은 노예를 어떻게 대하고 사용했을까? 유럽인들은 노예들을 사람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했다. 만약 노예들이 이에 저항하거나 일의 수익이 유럽인들에게 만족되지 않으면 노인, 아이 가릴 것 없이 팔을 자르고, 심하면 머리까지 잘라버리는 잔인한 농노 제도를 만들었다.</p> <p>3) 삼각무역은 무엇일까? 삼각무역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노예를 싣고 가서 아메리카 대륙에 판 것을 의미한다. 유럽인은 철, 무기 등을 아프리카에 부자들에게서 노예들과 바꾸고, 그 노예들을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설탕, 담배 등 특산물을 파는 무역을 말한다.</p> <p>4) 왜 아프리카는 쉽게 정복되었을까? 아프리카는 글자 법, 심지어 행정 조직조차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 할지 짐작도 하지 않은 채 보호령이 되겠다는 서류에 서명하고, 땅에 대한 권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원주민들은 총과 무기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개념을 모르니 당연히 사용 방식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정복을 쉽게 당한 것 같다.</p>

	<p>5) 프랑스가 펼친 동화 정책은 무엇이고 그것은 바람직한 정책일까?</p> <p>동화 정책은 식민지 주민과 각국의 시민들을 동등하게 대하는 정책이다. 이까지 들으면 바람직해 보이지만 조건들이 필요했다. 오직 프랑스어만 사용해야 한다. 아프리카에는 문자가 없어서 교육과정에 차별이 생긴다 그래도 프랑스는 유학까지 거친 이들에게는 독립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식민지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되는 현상까지 생긴다. 나는 동화 정책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p> <p>6) 어떻게 라이베리아는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p> <p>미국의 해방 노예와 자유 흑인들을 이주시켜서 라이베리아를 건국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1847년 독립을 선언했지만, 프랑스와 영국은 호시탐탐 라이베리아를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때마다 미국의 도움을 받아 끝까지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다.</p> <p>7) 유럽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온 아프리카는 어떤 저항 운동을 했을까?</p> <p>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3.1 운동, 이토 히로부미 살해 등 다양한 저항 운동을 했다. 아프리카는 어떤 저항 운동을 했는지 찾아보니 아프리카도 다양한 저항 운동 들을 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12년에 설립된 정치 단체로,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맞서 싸웠다. 넬슨 만델라가 이끄는 ANC는 비폭력 시위뿐만 아니라 무장 투쟁도 수행했고, 결국 1994년 민주 정부를 이루는 데 성공했다.</p> <p>7-1) 아프리카에 침략한 유럽의 잘못일까? 아니면 대비를 안 했던 아프리카의 잘못일까?</p> <p>나는 아프리카에 침략한 유럽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가만히,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냈던 아프리카에 말도 없이 들어와서 마음대로 대륙을 나누고, 피부색으로 차별을 하며 사람 취급도 안 해주었기 때문이다. 힘이 약하다고, 우리와 다르다고 다른 나라에게 피해를 주는 것 옳은 행동이 아니다. 아프리카의 힘이 약했을 수도 있었지만, 힘이 세다고 약한 나라를 괴롭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나는 아프리카에 침략한 유럽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1) 아프리카에 원조를 해야 할까?</p> <p>우리 전세계에서는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등 다양한 곳에서부터 아프리카에 원조를 하고 있다. 후원을 하면 아프리카인들은 지금 당장은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지만, 원조가 과연 아프리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아프리카 인이자 경제학자인 담비사 모요는 아프리카에 원조란 죽음이라고 한다. 원조를 하면, 아프리카인들은 들어오는 돈으로 일도 하지 않고 돈만 받는다. 물론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시대도 있었지만 언제, 어떻게 끝이 날지 모르는 원조는 멈추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이 자리에서 더이상, 누구보다도 앞서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당장 원조를 끊는 것이 아니라 소액 대출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 곡식들을 키울 수 있는 소량의 돈을 지불해 주고, 곡물을 가꾸는 법을 알려준다. 그럼 아프리카인들은 직접 가꾼 곡식을 팔아 돈을 벌고 받은 돈을 갚을 수 있다. 그러면 아프리카인들은 돈도 벌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방법도 알게 될 것이다.</p> <p>2) 이웃 나라가 전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러·우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밀, 쌀과 같은 곡물이 많이 재배가 되는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서 쌀, 빵 등 많은 음식의 값이 오르고 있다. -또한 큰 폭발들로 인해 지구의 대기와 바다 등 심한 영향을 끼친다. <p>3) 서구열강의 아프리카 쟁탈전처럼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시대를 겪었는데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p> <p>우리나라도 일본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했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이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첫째,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아야 한다. 옛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아야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행동들을 본받을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 일단 우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른 나라

에게 알리고,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을 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우리나라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힘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고, 감사해야 한다. 그렇게 작은 애국심들이 모여서 쌓이고 쌓이면, 3.1 운동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뜻을 하나로 통일하고, 서로서로가 힘을 쓰면, 우리나라에 더 큰 힘이 될 것이다.

4)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철도와 학교를 지은 것은 옳을까?

아프리카에 철도와 학교를 지은 경우 겉으로 보기에는 옳은 행동이다. 하지만 속은 옳다고 볼 수 없다.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이동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게 광산, 농장, 항구 등을 실어 오기 위해 지어졌다 또한 많은 철도들은 아프리카인들의 저임금 또는 강제 노동으로 지어져 이 비용을 최소화하여 유럽에 이익을 극대화하였다. 결국 철도는 아프리카를 의한 것이 아닌 유럽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옳다고 볼 수 없다.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전태언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	이유()		
소속 학교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해강초등)학교			학년-반	5-3
대상 도서	아프리카 쟁탈전	지은이	기획집단 MOIM	출판사	그림씨
주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73 해강초등학교 (우편번호: 48091)				
	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경남마리나 아파트 106동 1101호 (우편번호: 48091)				
연락처	집: 010-9859-9799 이동전화: 010-9859-9799	E-mail 주소: yeppeimini@hanmail.net			
<p>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강동채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핸드폰: 010-2435-4131 이메일: milchtea@hanmail.net</p> <p>*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p>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림)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5 월 1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5 월 16 일 지원자: (전태언)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 (양식)

(해강초등)학교 (5)학년 (3)반, 성명 (전태언), 전화번호(010 5008 9970)

대상도서	아프리카 쟁탈전	
토론방법	이야기식 독서토론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1. 아프리카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a: 원시 부족들과 더운 기후가 생각납니다.</p> <p>2. 표지를 보고 무슨 이야기인 것 같았나요? a: 다른 서양 나라에서 아프리카인들을 괴롭히는 이야기일 것 같았습니다.</p> <p>3. 제목을 보면 어떤 이야기일 것 같았나요? a: 아프리카의 땅을 여러 나라가 약탈하고 점령하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1. 아프리카 쟁탈전이라는 책의 주요 주제는 무엇인가요? a: 유럽나라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경쟁하며 벌인 역사적 사건들을 다룬 책입니다.</p> <p>아메리카에 서양 나라들이 관심을 가진 까닭은 무엇일까요? 2. 처음에는 아메리카에 서양 나라들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아메리카에 금광과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p> <p>2-1. 아메리카에서 서양나라들이 아프리카로 무엇을 하려고 했나요? a: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아메리카 노예들을 대체해 힘이 세고 면역력도 강한 아프리카인들을 노예로 이용하려 했습니다.</p> <p>3. 아프리카의 독립을 영국은 허락했나요? a: 허락했지만 영국은 많은 조건들을 부여해 순순히 허락하진 않았습니다.</p> <p>4. 아메리카 노예들이 많이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a: 영국 사람들의 병에 옮아서 병으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p> <p>5. 맥심 기관총은 영국 사람들에게 어떤 편리함을 주었나요? a: 장전하지 않아도 되고 1분당 600발 이상도 쏠 수 있어 화력이 뛰어납니다.</p> <p>6.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왜 곡선이 아닌 직선일까요? a: 원래는 호수, 강, 아니면 산맥과 같은 자연환경으로 국경이 만들어지지만 직선이란 것은 자연환경과 무관하게 선을 그어서 직선이 되었습니다.</p> <p>7. 레오플드 2세는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어떤 제도를 투입했나요? a: 고무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학대를 하지 않고 손을 잘라버리는 무시무시한 제도를 투입했습니다.</p> <p>8. 수에즈 운하가 진척을 보이자 영국이 한 일은 무엇일까요? a: 다른 사람들에게 훼방을 놓아 일을 방해했습니다.</p> <p>9. 현재 아프리카가 방송 채널에서 후원 광고가 뜨는 이유는 뭘까요? a: 유럽의 침략으로 인해 아프리카가 많이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p> <p>10. 왜 사람들은 북아프리카의 이슬람권 너머로 가려고 했을까요? a: 전설에 따르면 그곳에 있는 프레스터 존이 다스리는 왕국과 손을 잡으면 날마다 번창하는 이슬람 세력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1. 평화가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a: 아프리카와 같은 곳을 약탈하는 다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2.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a: 아프리카 주민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국가들이 진짜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	

3. 아프리카가 더 나아진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 것 을 막고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장을 하면 더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 같습니다.

4. 아프리카와 같이 일본에게 식민지가 된 적이 있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우리나라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강해져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약한 사람이나 노약자들을 본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a: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하면 안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책속의 유럽의 나라처럼 약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6. 만약 당신이 당시 아프리카 사람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a: 분노, 두려움, 억울함 등을 느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지배를 당하고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은 모든 것을 무섭고 슬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7.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요?

a: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자유를 빼앗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반성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0),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김서후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	이유()		
소속 학교	(부산)시/도 (해운대)구/시/군 (우)동/읍/면 (해강초등)학교			학년-반	5-4
대상 도서	문시티	지은이	김주영	출판사	풀빛미디어
주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73 (우편번호 : 48091)				
	집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63 현대베네시티 101-2501(우편번호 : 48091)				
연락처	집 : 010-3109-7414 이동전화 : 010-9442-7414	E-mail 주소 : sadade8789@hanmail.net			

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 강동체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 핸드폰 : 010-2435-4131

이메일 : milchtea@hanmail.net

*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림)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6월 5일 지원자 : (김 서후) 김서후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2025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개인전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 (양식)

(해강)학교 (5)학년 (4)반, 성명 (김서후), 전화번호(010-9442-7414)

대상도서	문시티
토론방법	이야기식 독서토론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1. 책 제목을 보고 달에 있는 도시일까? 문시티라는 제목 때문에 “달에 있는 도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였습니다.</p> <p>2. 책 곁표지를 보니 여자아기가 높은 곳에서 달을 보고 있는데 제목과 관련이 있을까? 글쓴이의 상상이였습니다</p> <p>3. 작가는 왜 하필 문시티라는 제목을 골랐을까? 작가는 문시티라는 곳의 의미를 다양하게 했던 거 같습니다</p> <p>4. 문시티는 소원을 이루는 장소일까? 아니였습니다 문시티는 그런 장소의 의미가 아니였습니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1. 10월 2일의 비밀은 무엇이였을까? 10월 2일의 비밀은 리수의 부모님이들이 연수가 보고 싶으서 리수 몰래 봉안당에 가는 날짜입니다. 그곳은 연수의 DNA를 복제해서 연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2. 동현이는 무엇을 잃었나요? 동현이는 집에 불이나는 바람에 한쪽 다리가 화상이 너무 심해서 절단을 했습니다</p> <p>3. 리수의 어머니는 무엇을 착각하고 있었습니까? 리수가 수학을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서 엄마는 수학 문제집과 학원을 많이 보내면서 리수가 싫어했습니다.</p> <p>4. 리수의 엄마는 왜 오리인형을 사 주었나요? 리수의 언니 유연수가 오리인형을 좋아했습니다</p> <p>5. 왜 한유비는 힘든 동현이를 도와주지 않고 무시했나요? 동현이가 한쪽 다리가 없어서 남들과 다르다고 이상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p> <p>5-1. 한유비은 어떤 성격이였나요? 한유비는 학교에서 일진 같은 같은 못된 아이였습니다.</p> <p>7. 유괴범이 왜 하필 리수와 동현이를 철상자에 가두었나요? 유괴범은 나무와 유리 같은 상자는 쉽게 깨질 거 같아서 아주 단단한 강철에 아이들을 가뒀습니다.</p> <p>8. 유연수는 누구인가요? 유연수는 리수의 언니이고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p> <p>9. 왜 미성년자는 달에 가지 못 할까요? 제 생각에 성장기에 달에 가면 성장에 나쁜 영향 있을 거 같습니다.</p> <p>10. 리수는 왜 동현이에게 문시티에 가자고 했을까요? 동현이의 다리가 불편해서 지구의 중력의 10분의 1인 문시티로 가자고 했습니다. 왜냐면 중력이 낮으면 다리가 덜 불편하기 때문입니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1. 현실에서도 문시티의 놀라운 기술이 생길 수 있을까요? 있을 꺼 같습니다. 왜냐면 현재 기술과 과학의 발달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p> <p>2. 죽은 사람과 똑같은 DNA를 가진 사람을 복제하는 기술은 언제 의료계에 발명될까요? 유전학 기술은 급속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완벽하게 복제되는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AI 기반으로 의료로봇들이 개발되고 있는 현 시점에 곧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최첨단 의료시설은 개발될 것입니다.</p> <p>3. 이 세상에서 장애인이라는 편견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조금 더 장애인을 대중적으로 봐라 본다면 편견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예들들면 우리 주변에 좀 더 많은 장애인 공공 시설들이 생기고 장애인 친구들 사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면 좋겠습니다.</p>

4. 최근 챗GPT도 문시티처럼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을까요? 최근 챗 GPT는 현대의 인공지능 언어모델이고 다양한분야에서 활용되는만큼 우리에게 큰 도움을주고있습니다
5. 과연 우리는 어느 곳으로가야 고민이사라질까요? 나는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친구들과 때로는 싸워도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엄마아빠를 보면 늘 위안을얻고 엄마의 맛있는 음식을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거보니 나에게는 우리집이 고민이 사라지는 장소입니다.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임은찬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	이유()		
소속 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해강초등학교			학년-반	6 - 5
대상 도서	아프리카 생활전	지은이	기획집단 MOIM	출판사	그림씨
주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73 (우편번호 : 48091) 집 : 부산광역시 연제구 좌수영로 225, 102-1503 (센텀리버 SKVIEW) (우편번호 : 47571)				
	집 :	E-mail 주소 : princs11@naver.com			
연락처	이동전화 : 010-3885-1797				

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 강동채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 핸드폰 : 010-2435-4131

이메일 : milchtea@hanmail.net

*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립니다)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학교장 추천서(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5월 28일 지원자 : (임은찬 )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 (양식)

해강초등학교 6학년 5반, 성명 (임은찬), 전화번호(010-3885-1797)

대상도서	아프리카 쟁탈전
토론방법	이야기식 독서토론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1.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물 부족, 기아, 난민, 기부, 라이온킹, 사막, 사파리가 떠오르는데, 주로 넓고 푸른 자연환경의 긍정적인 모습과 어려운 사회 환경의 부정적인 모습이 대표적이다.</p> <p>2. 책표지에서 유럽 사람은 멋진 옷을 입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헐벗고 있다. 아프리카는 문명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않았고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p> <p>3. 아메리카에 어떤 문제가 생겼기에 유럽이 식민지를 아프리카로 바꾸었을까? 나는 아메리카 인구 수가 강제 노동으로 인해 감소하였고 충분한 자원을 얻을 수 없었기에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것 같다.</p> <p>4. 아프리카에도 군대가 있는데 유럽인에게 쉽게 당했을까? 내 생각엔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집단(부족)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강력한 행정조직도 없었을뿐더러 무기도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p> <p>5. 앞표지에서 아프리카 아이의 손이 잘려 있는 이유가 뭘까? 다른 나라에 노예로 데려가거나 강제로 노동을 시켰을 때 저항을 해서 폭력으로 무력화시킨 것 같다.</p> <p>5-1. 다른 대륙과 나라도 많은데 왜 아프리카일까? 아프리카는 매우 넓고 자원이 풍부하며 유럽에서 접근하기 쉬워 자원을 쉽게 이동시킬 수 있으며 아프리카가 침략에도 쉽게 무너질 만큼 힘이 약했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1. 아프리카의 국경선은 대부분 직선인 이유가 무엇인가? 아프리카를 쟁탈하려고 했던 유럽 여러 국가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인위적으로 국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p> <p>2.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어떻게 식민지를 지배했을까? 프랑스는 식민지 주민들을 본국 시민과 동등하게 대우하는 동화정책을, 영국은 식민지 민족의 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하는 연합 정책을 펼쳤다.</p> <p>2-1. 일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지배하였는가? 일본은 조선인들을 일본의 왕에게 충성하는 국민으로 만들겠다는 황민화 정책을 펼쳤다.</p> <p>3. 삼각무역이란 무엇인가? 삼각무역은 유럽인들이 아프리카 노예를 살고가 아메리카 대륙에 판 것을 말한다.</p>

	<p>3-1.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삼각무역 진행방식은 무엇인가?</p> <p>유럽인들이 무기를 들고 아프리카의 노예와 교환하고 아메리카 농장주에 팔았다.</p> <p>4. 네덜란드에서 온 보어인은 어떤 일을 했나?</p> <p>질 좋은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땅을 넓혀가고 관할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약탈, 살인 등을 하였다.</p> <p>4-1. 보어인들이 화장하고 있던 케이프타운에 영국이 영국령으로 만들면서 어디로 이동하였는가?</p> <p>보어인들은 동북쪽으로 이동해 나탈공화국, 오렌지자유국 등을 세웠다.</p> <p>4-1-1. 보어인들이 아프리카에 오면서 무슨 영향을 끼쳤나?</p> <p>보어인들은 현지 원주민들과 충돌하였다. 그들은 원주민의 생활 방식을 크게 바꾸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했습니다.</p> <p>5. 영국 선교사 리빙스턴은 어떤 사람인가?</p> <p>아프리카 오지를 탐험하고 노예무역에 반대한 사람이다.</p> <p>6. 아프리카를 침략한 유럽의 행동은 옳을까?</p> <p>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무력 지배를 받고 광복하기까지의 일반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하였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빼앗고 우리의 말과 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민족의 고유성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1. 아프리카에 원조를 보내야 할까?</p> <p>나는 원조를 보내는 것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속 원조를 보내면 그것에 의존하여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울 수가 없다. 그 대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정책과 방안들을 알려 주고 싶다.</p> <p>2. 아프리카처럼 우리나라가 문화식민지 혹은 다른 나라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p> <p>첫째,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경제 산업을 발전시켜 나라가 부유해지면 세계사회의 막강한 파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교육이 근간이 되어 기술, 과학, 의학, 경제 등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인재들을 키워야 한다. 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핵심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물론 세계를 주름잡을 수 있는 훌륭하고 특별한 자원이다.</p> <p>3. 아프리카가 60년만에 어떻게 6배의 인구 증가를 이루게 되었을까?</p> <p>아프리카의 전통이나 문화로 인해 인구가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p> <p>우리 나라가 농경사회일 때는 노동력이 매우 필요하여 출산을 많이 하였지만,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맞벌이, 사교육, 부의 양극화 현상 등으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 나라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효과가 미비한 것과 대비되게 아프리카는 출산정책이나 교육정책등 전반에서 인식의 차이가 있고 여전히 부족의 생활이나 옛날 전통을 중시하고 따른 것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p>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신청서(개인전)

2025학년도

참가부문 : 초등3~4(), 초등5~6(), 중학교(), 고등학교()

성명	임세운	해외 및 도서 벽지 학생일 경우 온라인 참가 희망 표시 온라인 참가 희망() 이유()		
소속 학교	(부산)시/도 (부산)구/시/군 (우)동/읍/면 (부산)초등학교			학년-반 6 - 1
대상 도서	문서	지은이	김주영	출판사
주소	※ 명확히 기재해 주세요. 수상자에 대한 공문과 통지발송에 필요합니다. 학교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 (우편번호 : 48099) 집 :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23 102 (우편번호 : 48099)			
연락처	집 : 010-9368-7888 이동전화 : 010-9135-3137	E-mail 주소 : ynsyeun0524@naver.com		

지도교사명(교사가 지도하였을 경우에만 기록) : 강동래

지도교사 연락처 학교전화 : / 핸드폰 : 010-2435-4131
이메일 : 010-2435-4131

* 지역아동센터나 작은도서관은 아래 팔호에 해당 기관 명칭,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다문화'라고 기록 (,)

학교장 추천 여부 (단체 응모일 경우 200명당 1명씩 학교장에게 추천권을 드림)	추천 학생만 아래 팔호에 <추천>이라고 붉은색으로 기록해 주세요 ()
---	---

학교장 추천서 (학교장 추천 받을 학생만 작성, 학교장 추천서 없어도 됨)

위 학생을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 참가 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25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위와 같이 제24회 대한민국 독서토론·논술한마당에 참가를 신청하며, 신청서에 기록한 내용에 대한 정보이용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본 대회의 모든 사진 및 영상 자료는 대회 개최 측에 귀속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5 월 17 일 지원자 : (임세운) 임세운

(사)전국독서새물결모임 귀중

이야기식 독서토론 발문지

(해강초등)학교 (6)학년 (1)반, 성명 (임세운), 전화번호(010-9368-7888)

대상도서 토론방법	문시티 이야기식 독서토론
	<p>*실제로 달에 갈 수 있나요? 답.실제로는 우주 비행사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갈 수 있다.</p>
책문 열기 (배경지식 꺼내기)	<p>*왜 성장기의 아이들은 달에 갈 수 없나요? 답.아이들이 우주에 가면 무중력 영향으로 뼈가 약해진다. 그러므로 성장기에 달에 안 가는 것이 좋다.</p> <p>*달에 가면 왜 인공다리로도 편하게 다닐 수 있나요? 답.달의 중력은 지구의 중력의 1/6이라서 편하게 다닐 수 있다.</p>
	<p>*동현이는 어떻게 다리를 잊게 되었나요? 답.부모님과 여행을 갔다가 호텔에 불이나 다리를 잊게 되었다.</p> <p>*리수가 잡혔을 때 어떤 방법으로 탈출을 했나요? 답.토한다는 평계로 화장실에 가 벽에 립스틱으로 차량 번호와 엄마 전화 번호를 적었고, 엄마가 피부 아래 놓아둔 위치추적 장치로 위치를 경찰들이 추적해 탈출할 수 있었다.</p>
책 이야기 나누기	<p>*동현이에게 문시티를 알려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동현이에게서 가짜 다리를 빼앗고 돈을 벌려고 한 사기꾼 김준표이다.</p> <p>*리수는 봉안당에 가 어떤 비밀을 알아냈나요? 답.자신의 죽은 친언니이자 수학 천재인 유연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p> <p>*리수는 자신이 클론임을 알고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답.사랑하는 엄마가 그동안 클론임을 숨긴 것에 대해 배신감과 그동안의 시간이 가짜였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왜냐하면 자신과 제일 가까운 사람인 엄마가 그동안 속이고 살았기 때문이다.</p> <p>*교수님과 연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답.교수님이 수학 천재인 유연수를 직접 가르쳤다.</p>
인간 삶과 사회 적용	<p>*자신이 납치 되었다면 어떤 방법으로 탈출 시도를 할 건가요? 답.내가 납치 되었다면 아저씨들이 방심한 사이 음니어블을 훔쳐 112에 전화할 것 같다.</p> <p>*자신이 클론임을 알았을 때 어떤 기분이 들 것 같나요? 답.내가 클론임을 알았을 때 내자신이 누구인가의 대한 생각에 혼란스러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진정한 나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p> <p>*한윤비가 동현이를 놀린 것처럼 장애인이 놀림이나 폭력을 받을 때 해결 방안은 무엇 일까요?</p>

답. 놀림을 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만약 놀리는 것을 발견했을 때 즉각적으로 개입해 중단시키고, 위로해 줄 것이다.

*문시티가 실제로 있다면 가고 싶나요?

답. 나는 가고 싶다. 꼭 인공지능 다리나 신체가 아니더라도, 현실과 다른 불가능한 모험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사고로 팔다리에 장애를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나요?

답. 처음에는 슬프고 절망적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츰 팬찮아질 것 같다.

왜냐하면 장애를 입었다고 해도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희망을 잃지 않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자신이 장애를 입어도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낼 수 있나요?

답. 꿈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열정적이고,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 간다면 결국 이루어 낼 수 있다.

*장애인으로 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답. 장애인으로 살면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못해 불편할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데로 움직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며, 사람들의 장애인의 대한 편견도 있기 때문이다.

*문시티를 이용해 인공다리를 빼앗은 것처럼, 현재 이 시대에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 불법이나 가짜 사이트들을 검토하고, 곳곳에 경찰들을 배치하면 좋겠다.

우리 시민들도 범죄에 용감하게 맞서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